

월리엄 포크너

에밀리에게 장미를



에밀리에게 장미를

1

그때 우리들은 아무도
 그녀가 미쳤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우리들은 그녀의 부친이 쫓아버린
 수많은 청년들을 회상했다.
 그리고 무엇 하나 뒤에 남겨 놓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녀로서도 자기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미스 에밀리 그리어슨이 죽었을 때 우리 읍내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녀 장례식에 참석했다. 남자들은 이른바 쓰러진 기
 념비에 일종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였고, 아낙네들은 거의 대
 부분 그녀의 집안을 보고 싶은 호기심에서였다. 그녀의 집 내부는
 과거 10년 동안 정원사 겸 요리사로 있는 늙은 하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이 집은 한때 흰 칠을 한, 크고 네모진 목조건물이었다. 1870
 년대 특유의 매우 우아한 양식을 본받은 둥근 지붕이며 뽕죽한
 타이며 소용돌이 모양의 발코니 따위로 장식되어 있었다. 게다가
 한때 우리 읍에서는 가장 세련된 거리였던 곳에 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 차고라든지 목화씨 뽑는 기계 따위가 우리 읍내에
 침입해 오자 그 부근의 위엄있는 이름들마저 싹 지워버리고 말
 았다. 다만 미스 에밀리의 집만이 홀로 남아서 변화 마차와 가솔린
 펌프 위에 우뚝 솟아 그 고집세고 교태에 찬 조락(凋落)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란 더할나위 없이 눈에 거슬렸다.
 그런데 그 미스 에밀리마저 이제 고인이 되어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그 으리으리한 묘지의 한 구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제퍼슨의 전투에서 쓰러진 남군·북군의 장병들로서 그녀 또한 유명 무명의 무덤 사이에 섞여 오리나무가 우거진 묘지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미스 에밀리가 살아있을 땐, 그녀는 하나의 전통이었고 하나의 의무였을 뿐더러 하나의 귀찮은 존재의 화신이기도 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 마을에 부과된 일종의 세습적인 의무였는데, 읍장인 사토리스 대령이 — 그는 흑인 여자가 거리에 나올 때는 반드시 앞치마를 둘러야 한다는 포고령을 처음으로 내린 장본인인데 — 그녀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1894년의 어느 날, 즉 그녀의 부친이 죽은 날부터 시작하여 영구히 계속되는 특별 면세였다. 그러나 미스 에밀리는 그런 자선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사토리스 대령은 한 가지 임시방편의 구실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즉 미스 에밀리의 부친이 읍 당국에 돈을 꾸어 주었으니 읍으로서의 사무 절차상의 의당 이런 방법으로 갚는 것이 좋겠다는 그럴싸한 구실을 날조했던 것이다. 이런 구실은 사토리스 대령의 세대나 그 세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들만이 만들어 낼 법한 구실이요, 여자들만이 그런 이야기를 끝이들을 만한 그런 구실이었다.

그러나 보다 현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다음 세대의 사람이 읍장이나 평의원 자리에 앉게 되자, 이와 같은 면세조처에 대해서 차츰 불만의 소리를 일으켰다. 그래서 정월 초하룻날 읍 당국은 에밀리에게 납세고지서를 우송했다. 2월이 되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문 서한을 띄워 언제든지 좋으니까 편리할 때 읍사무소로 나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일이 있는 1주일 뒤 읍장은 스스로 펜을 들어, 자기가 방문하거나 아니면 차를 보내도 좋은가 하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이제는 외출을 전혀 않게 되었다는 사연을, 구식 편지지에다 퇴색한 잉크로

가느다랗게 휘갈겨 쓴 한 통의 답장을 받았다. 세금 통지서도 그 안에 동봉되어 있었지만 세금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

읍 참의원회에서는 특별소집을 했다. 그 결과 대표가 선출되어 그녀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들은 벌써 8년인지 10년 전에 그녀가 도자기 그림 공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방문객이 다녀간 적이랴곤 한 번도 없었던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다. 일행은 늙은 흑인의 안내로 침침한 현관에 들어섰는데 거기에는 더욱 어두컴컴한 층계가 2층으로 통해 있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타인지 위층 방에서 풍겨 오는 습기차고 퀴퀴한 냄새는 숨막힐 것 같았다. 흑인은 찾아온 사람들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응접실에는 가족으로 만든 목직함 가구들이 비치되어 있었다. 흑인이 들창문 휘장을 걷어 치웠을 때 가족에 금이 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넓적다리 언저리에서 희미한 먼지가 슬슬 피어 올라와서 외줄기 햇살 속에 느릿느릿 소용돌이쳤다. 벽로 앞에 세워 둔, 변색된 금색의 화가(畵架) 위에는 크레용으로 그린 에밀리의 아버지 초상화가 세워져 있었다.

그들은 에밀리가 응접실에 들어오자 일제히 일어섰다 — 검은 옷을 입은 작고 살쥔 여자이며, 변색한 금색 꼭지가 달린 금줄을 허리까지 늘어뜨려 그 끝이 허리며 아래로 감추어져 있었다. 몸집은 작은데다 빈약했다. 만 여자라면 그저 통통한 체구의 소유자라는 말을 들겠지만 이 여자의 경우, 비만해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었으리라. 그녀는 흰 물에 오랫동안 잠가놓았던 것처럼 부풀어 있고 피부색도 창백하게 보였다. 방문객들이 그들의 용건을 말하고 있는 동안 굴곡이 심한 우뚝뚝한 얼굴 속에 파묻힌 그녀의 두 눈은 이 사람의 얼굴에서 저 사람의 얼굴로 옮겨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밀가루 반죽 속에 파묻힌 두 개의 조그만

석탄조각처럼 보였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았다. 다만 문전에 선 채로 대변자가 머뭇거리며 말문이 막힐 때까지 묵묵히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일행은 금줄 끝에 매달린,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계의 재깍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싸늘했다.

「저도 제퍼슨 읍에선 납세의 의무가 없단 말예요. 사토리스 대령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당신들 중에서 누구든지 읍 당국에 비치된 문서를 대조하여 보면 잘 알 거예요.」

「그러나 이미 대조해 봤는 걸요. 미스 에밀리, 저희들이 바로 읍 당사자니 말예요. 읍장이 서명한 납세 통지서를 받지 않으셨는지요.」

「네, 무슨 종이를 받긴 했어요.」

하고 미스 에밀리는 말을 이었다.

「아마 그 친구가 읍장으로 자인하는 모양인데 — 하여간 나는 제퍼슨에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헌데 그런 것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장부에는 보이지 않던데요. 저희들은 기록문서가 없으면 부득불 —」

「사토리스 대령을 만나 봐요. 난 제퍼슨에선 납세의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만, 미스 에밀리, 저 —」

「사토리스 대령을 만나 보라니까요. (사토리스 대령은 죽은 지 거의 10년이 넘었다) 나도 제퍼슨에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단 말예요, 토브!」

흑인 하인이 나타났다.

「이 손님들을 돌아가게 해 드려요!」

2

이렇게 그녀는 그들 일행을 서슴없이 물리쳐 버렸던 것이다 — 마치 그녀가 30여 년 전에, 그들의 부모들을 집안의 악취로 멧지게 무질러버린 것처럼. 그것은 그녀의 부친이 죽기 2년 전 그녀의 애인 — 그녀와 결혼하리라고 우리들이 믿고 있었던 사나이 — 이 그녀를 저버린 직후의 일이었다. 부친이 죽은 뒤 그녀는 외출하는 일이 아주 적어졌다. 그리고 애인한테 버림을 받은 뒤로는 읍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다. 몇몇 여인들은 대담하게도 그녀를 방문했지만 면회가 거절되었다. 그리고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유일한 표시로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드나드는 흑인하인 — 그당시엔 아직 젊었지만 — 뿐이었다.

「마치 사내들은 — 어떤 사내건 — 부엌일을 맡끔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여인들은 숙덕거렸다. 그래서 그 집에서 악취가 풍겨 나와도 여인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수상히 여기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조잡하고 혼잡하며 뒤숭숭한 외계와 의젓하고 당당한 그리어슨가(家)를 뺏는 또 하나의 고리였다.

이웃에 사는 어느 여자가 여든 살 난 읍장인 스티븐스 관사에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러면 부인,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읍장은 말했다.

「아 그거요, 악취가 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한 법은 없을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군요.」

하고 스티븐스 판사는 대답했다.

「아마 그 집 점등이녀석이 마당에서 죽인 쥐나 뱀 때문이겠죠.

그녀석에게 따끔히 일러 두겠어요.」

그 이튿날 읍장은 또 두 건이나 항의를 받았다. 그 중 하나는 은근한 어조로 비난해 온 한 사나이의 불평이었다.

〈판사님, 정말이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겠어요. 저도 미스 에밀리를 괴롭힐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어요.〉

그날 밤, 읍 위원회가 열렸다 — 잿빛의 수염을 한 노인 4명과 그보다 한결 젊은 청년위원 한 사람이 참석했다.

「지극히 간단한 문제지요.」

하고 청년위원은 말했다.

「울 안 청소를 깨끗이 하라고 명령하란 말입니다 —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을 주자구요. 만일 말을 듣지 않을 땐 —」

「여보,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하고 스티븐스 판사는 말했다.

「그래 악취가 난다고 점잖은 부인을 어떻게 면박한단 말시오?」

그리하여 미스 에밀리의 집으로 몰려간 사람들은 제각기 잔디밭을 지나 도둑처럼 집 주위를 살금살금 돌아다니며 벽돌 틈새와 지하실 입구의 냄새를 맡았다. 그러는 동안, 그들 중 한 사람은 어깨에 부대를 매고 꼭 씨앗 뿌리는 식으로 소독약을 뿌리고 다녔다. 그들은 지하실 문을 열어젖히고 그 안에다 석회를 뿌렸다. 그리고 바깥채에도 똑같이 석회를 뿌렸다. 일행이 잔디밭을 다시 가로질러 나갈 때, 이제까지 어두웠던 들창문에 불이

켜졌으며 불빛을 등지고 앉은 미스 에밀리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깨끗한 상체는 우상의 그것처럼 부동의 자세였다. 일행은 가만가만히 잔디밭을 기어나와 가로에 즐비한 아카시아나무 그늘로 몸을 감추었다. 그후 한 두 주일이 지나자 그 악취는 사라졌다.

읍사람들이 정말로 그녀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우리 읍에 사는 사람들은 그녀의 고모 할머니가 되는 와이어트 부인이 마침내 완전히 미쳐버리고 만 것을 회상하고는 그리어슨가 사람들이 자기네 분수도 잊어버리고 지나치게 거만을 부린다고 믿었던 것이다. 마을 청년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미스 에밀리의 배필로 걸맞게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일족을 한 폭의 활인화(活人畵)로 여기고 있었다 — 미스 에밀리는 흰옷차림의 날씬한 모습으로 뒤에 서고, 그녀의 부친은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말채찍을 손에 쥐고 양다리를 버티고 선 실루엣의 모습으로 전면을 가리우고 있다 — 그들 두 사람 뒤에 활짝 열린 현관 문이 사진들의 구실을 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에밀리의 나이가 서른이 되도록 독신으로 지낼 때 우리들은 반드시 기분이 좋았다고까지는 못해도 속으로 고소함을 금치 못하는 심정이었다. 아무리 집안 혈통에 유전적으로 미친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결혼할 기회가 나타나기만 했더라면 그 기회를 모조리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에밀리 부친이 죽었을 때 그녀가 이어받은 것은 집 한 채밖에 없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 사람들은 좋아하였다. 이로써 미스 에밀리를 동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지꼴이나 다름없이 외톨토리로 남게 되었으니 그녀도 인간미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제는

그녀도 돈이 한 푼이라도 더 많으나 적으냐에 따라서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할 것이며, 평소 그녀의 속성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친이 죽은 다음 날 읍내 부인네들은 관습에 따라 그녀의 집을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고 도와줄 차비를 갖추기로 했다. 그런데 미스 에밀리는 여느 때나 다름없는 복장에다 얼굴에도 슬픔의 기색하나 나타내지 않고, 그들을 맞이하러 문간에 나와서는,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목사들이 찾아오고 의사들이 그녀에게 장사를 지내라고 설득했지만 에밀리는 사흘 동안이나 꼭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고집을 부렸다. 사람들이 법에 호소하거나 실력행사를 하겠노라고 위협조로 나오자 그녀는 마침내 굴복했다. 그래서 읍사람들이 서둘러 장사를 지냈던 것이다.

그때 우리들은 아무도 그녀가 미쳤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우리들은 그녀의 부친이 쫓아버린 수많은 청년들을 회상했다. 그리고 무엇 하나 뒤에 남겨 놓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녀로서도 자기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3

그녀가 병석에 누운 지 오래 되었다. 우리가 그녀와 다시 만났을

때 머리가 짧게 잘려져 그녀의 모습은 마치 소녀와 같았다. 교회 색유리에 그려진 천사와 닮은 데가 있어 약간 비극적이고 조용한 느낌마저 들었다. 읍 당국이 도로포장 계약을 막 맺고 났을 때 애기다. 그녀의 부친이 세상을 뜨고 난 여름, 읍 당국은 공사를 시작했다. 청부회사에서는 흑인 노동자와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지고 왔다. 십장은 북부 출신의(호머 베론)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몸집이 큰데다 얼굴이 거무테테하고 날렵해 보이는 친구로 목소리가 우람하고 눈빛은 얼굴보다 좀 밝아 보였다. 어린애들이 때를 지어 그의 뒤를 마냥 따라다녔다. 그가 흑인들을 야단치는 것을 구경하기가 무척이나 재미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팽이가 오르내리는데 따라 박자를 맞추어 노래부르는 것이 무척 신기해 보였던 모양이다. 얼마 안되어 그도 읍내 사람들을 모두 알게 되었다. 광장의 어느 곳에서든 너털웃음이 터져나올 때면 언제나 그 무리 한 가운데서 호모 베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얼마 후 그는 미스 에밀리와 함께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다. 일요일날 오후면 마차집에서 세넌, 노란 수레가 달린 이륜마차를 밤색 말에 매달아 의종계 아베크하느 것이 번번히 눈에 띄었다.

처음에 우리들은, 미스 에밀리가 이제부터 살 재미를 붙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아낙네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수군거렸다.

「가문이 좋은 그리어슨 집 규수가 북부 출신 날품팔이꾼 녀석을 진정으로 상대할려구.」

그런데 나이가 든 다른 여자들 중에는 아무리 깊은 슬픔에 빠졌더라도 참된 숙녀라면 양반의 체통을 — 바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 잊을 리가 있겠는가, 하고 말하는 이도 더러 있었다. 그리고 다들,

「가연은 에밀리! 친척이라도 와 주는 게 좋겠구먼..」

하고 말할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엘라배마 주에 사는 친척이 있었다. 그러나 몇 해 전에 실성한 노파 와이어트 부인의 토지 문제로 에밀리의 부친과 언쟁이 있는 후로는 양가 사이엔 대화가 끊겨 버린 지 오래였다. 그들은 에밀리의 부친 초상 때에도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던 것이다.

노인의 입에서는,

「에밀리는 불쌍도 하지!」

하는 말이 나오자 마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하고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았다.

「물론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

사람들은 남들이 들을새라 입을 손으로 가리고 말했다. 일요일 오후 햇볕을 가리기 위해 들창 위에 쳐 놓은 발 뒤에서 목을 길게 내민 사람들의 입에서,

「가연은 에밀리!」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새어 나올 때면, 밖에서 비단 옷자락 스치는 소리에 섞여 말 두 필이 달리는 경쾌한 발굽 소리가 울려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만스럽게 고개를 높이 쳐들고 다녔다 — 그녀가 이미 몰락했다고 우리들이 믿었을 때는 더욱 그러했다. 그것은 그리어슨 가(家)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자기의 위엄을 이전보다 더욱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자기의 용고집을 세상 사람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도 그런 속된 짓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가 비소라는 쥐약을 살 때의 태도에도 잘 나타나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읍내 사람들

입에서,

「불쌍한 에밀리!」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 한 해가 넘은 뒤였으며, 2명의 사촌 언니들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여 묵고 있는 동안의 일이었다.

「독약을 줌 주세요..」

하고 그녀는 약제사에게 말했다. 그때 에밀리는 이미 서른이 넘었는데, 몸매는 아직도 날씬했다 — 여느 때보다 다소 말라 보이긴 했지만, 관자놀이와 안공(眼孔) 사이의 살이 팽팽한 얼굴에 싸늘하고 거만해 보이는 검은 눈을 하고 있었다. 생각컨대 등대지기의 얼굴 표정이 그렇지 않을는지 모르겠다.

「독약을 줌 주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네, 에밀리양, 어떤 종류의 것을 말이죠? 쥐라도 잡으시려 구요? 그렇다면 권하고 싶은 약이 —」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종류 같은 건 상관없어요..」

약제사는 대여섯 개의 약 이름을 뱉다.

「이것을 쓰면 코끼리라도 잡을 수 있죠. 현대 맥이 원하시는 것은 —」

「비소지요..」

하고 미스 에밀리는 말했다.

「그게 좋은 약인가요?」

「비소 말예요? 물론입죠, 그런데 원하시는 것이 —」

「비소를 달라니까요..」

약제사는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깨끗하게 서서 그를 마주 보았는데 그 얼굴은 마치 팽팽한 깃발과도 같았다.

「네, 물론 드리죠. 꼭 그 약을 사시겠다면요.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그 약의 용도가 무엇인지 밝히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스 에밀리는 약제사의 눈을 마주 보기 위해 고개를 뒤로 젖힌 채로 그를 뚫어질 듯이 쳐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약제사는 시선을 돌린 뒤 안에 들어가 비소를 꺼내어 종이에쌌다. 흑인 사환이 종이에 싼 약을 그녀에게 갖다 주었다. 약제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에밀리가 집에 가서 포장을 풀어 보니 약값 위엔 해골 밑에 두 개의 대각선으로 엇갈린 뼈가 받치고 있는 그림에 〈취약〉이라고 적혀 있었다.

4

그리하여 이튿날,

「그 여자는 자살할 거야.」

라고 모두들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상의 길일 거라고 말했다. 처음에 그녀가 호머 베론과 나란히 다니는 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 누구나,

「그 여자는 그 사나이와 결혼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다.

얼마 후,

「그 사나이와 결혼하려면 그녀는 계속 그를 설득해야 할 거야.」

하고 우리들은 말했다. 호머 자신이 자기는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가 젊은 남자들과 함께 엘크스 클럽에서 술을 자주 마시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 후 일요일 오후가 되면 두 사람은 번쩍이는 마차를 타고—

에밀리는 고개를 거만스럽게 쳐들고, 호머 베론은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이빨 사이에 여송연을 물고 노란 장갑을 낀 한쪽 손에는 고삐와 채찍을 쥐고 거리를 지나갔다. 그럴 때면 읍내 사람들은 들창문을 가린 발 뒤에서,

「에밀리는 가엾기도 하지.」

하고 속삭였던 것이다.

바로 그때 몇몇 여자들은 에밀리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읍 전체에 대한 불명예이며 젊은 이들에게 좋지 못한 본보기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그런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침내 여자들은 그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침례교(浸禮敎)목사—— 에밀리의 집안 사람들은 성공회(聖公會)에 속하고 있었는데——에게 강요하다시피 해서 그 여자 집을 방문했다.

그녀와의 면담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해서, 목사는 절대로 입 밖에 내려고 하지 않았으나, 두번 다시 그녀를 방문하기를 거절했다. 다음 일요일 그들이 마차를 타고 거리를 쏘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이튿날 목사 부인이 엘라베마에 살고 있는 에밀리의 친척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리하여 그녀도 한번 더 같은 지붕 밑에 친척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사태를 관망하였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그들이 머지 않아 결혼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미스 에밀리가 보석상에 가서 남자용 은(銀)제 화장도구를 한 세트 주문하고 그 하나 하나에 H·B라는 머릿글자를 새겨 넣도록 한 사실도 알았다.

「이제는 결혼을 하겠구먼.」

하고 우리는 말하면서 정말 기뻐했다.

우리들이 기뻐한 것은, 같이 살러온 에밀리의 두 종형제가 에밀리보다 더 그리어슨 가문을 자랑하는 듯 양반 티를 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머 베론이 읍을 떠났을 때에도 우리들은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 도로의 포장공사도 얼마 전에 끝났던 것이다.

우리들로서는 그들 사이에 감정의 폭발 같은 것이 없어서 다소 실망했다.

그렇지만 베론이 떠난 것은 에밀리를 맞아할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에밀리의 종형제들을 찾아보낼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일이 일종의 읍모 같은 것으로 여겨졌는데 우리들은 모두 그녀 편에 서서 종형제들을 함정에 몰아넣으려는 일에 온근히 마음속으로 찬성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후 그들은 에밀리의 집을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들이 처음부터 예상한 그대로 그로부터 사흘만에 호머 베론이 읍에 되돌아왔다. 어느 날 땅거미가 내릴 무렵, 흑인 하인이 부엌문으로 그를 맞아들이는 것을 이웃 사람이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호머 베론의 모습을 본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게다가 미스 에밀리의 모습도 그후 당분간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흑인 하인만은 장바구니를 들고 드나들었지만 앞문은 여전히 굳게 닫힌 채 열릴 줄 몰랐다. 이따금, 잠깐동안 그녀의 모습이 들창문가에 비치곤 했지만 — 마치 그날 밤, 석회를 뿌린 사람들이 본 것처럼 — 거의 여섯 달 동안이나 그녀는 일체 거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우리들은 그럴 수도 있으려니 생각했다 — 그것은 여자로서의 그녀의 생활을 무참히 꺾어 놓고만 그녀 부친의 그 성품이 너무 지독하여 쉽사리 지워 버릴 수 없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미스 에밀리를 만났을 땐 그녀의 몸은 뚱뚱해졌고, 머리칼은 반백이었다.

다음 2, 3년 동안 그녀의 머리는 점점 회색으로 바뀌었다가 마침내는 변색의 극한에 다다라 마치 후춧가루에 소금을 섞은 것 같은 철회색(鐵灰色)을 띠기에 이르렀다. 일흔 넷이라는 나이로 죽을 때까지 그녀의 머리 빛깔은 활동적인 남자의 머리칼과 같은 정력적인 철회색을 끝내 잔직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줄곧 그녀의 집 앞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기가 그녀의 나이가 마흔 전후였던 무렵, 즉 그녀가 도자기 그림 레슨을 해주던 6, 7년 동안만은 예외였다. 그때 그녀는 아래층 방에다 화실을 하나 꾸며 놓고, 사토리스 대령과 동년배 사람들의 딸이나 손녀들을 가르쳤다. 애들은 마치 현금함에 넣을 25 센트짜리 은화를 갖고 교회로 보낼 때와 똑같은 규칙성과 정신에서 그 화실로 보내졌던 것이다. 이때에도 에밀리는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윽고 새 세대 사람들이 읍의 중추를 이루고 이곳의 중심인 물로 등장하면서부터 그림 배우는 제자들도 다 성장하여 하나 둘 빠져나갔고, 몇몇 사람들의 아이들도 물감 상자와 지저분한 화필이나 부인잡지에서 오려낸 그림 따위를 가지고 에밀리의 화실로 보내지는 일이 차츰 줄어들고 말았다. 그리고 에밀리의 집 앞문은 마지막 빠져나가는 제자와 더불어 영영 닫혀버리고 말았다. 읍에서 무료우편배달제도(無料郵便配達制度)가 실시되었을 때 에밀리만은 현판 위에 금속번호표를 붙이거나 우편함을 다는 일을 한사코 마다했다. 그녀는 읍내 사람들의 말은 아예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흑인하인은 장바구니를 들고 드나들었지만 그도 이제는 머리칼이 잿빛으로 변하고 허리도 마냥 굽어만 가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3월이 되면 읍 당국은 납세고지서를 그녀에게 보냈지만

일주일 후에는 <받느이 없음>이라는 이유서가 붙여져 되돌아오곤 했다. 이따금 그녀의 모습이 아래층 들창문 안에 보이곤 하였다.

그녀는 분명히 위층 방을 폐쇄하고 아래층 방을 쓰고 있는 모양이었다 — 창문 안에 마치 벽감에 장식된 조각 흉상(胸像)과도 같은 그녀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그녀가 우리들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는 분간하기 힘들었다. 이리하여 그녀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겨갔다 — 다정하고 숙명적이며 무감각하고 침착하며 고집센 여인으로 — .

마침내 그녀는 그렇게 죽어갔다. 먼지와 그늘이 가득찬 집안에서 병이 든 것이다. 임종을 지켜볼 사람이라곤 연로하여 비틀거리는 흑인 한 사람뿐이었다. 우리들은 그녀가 병석에 누운 사실조차 몰랐다. 우리들은 흑인으로부터 에밀리의 사정을 캐내려 애쓰던 옛버릇을 포기한 지도 이미 오래되고 말았다. 흑인은 아무에게도 아마 그의 주인에게도 말을 안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인지 거칠고 녹슬어 있었다.

그녀는 아래층 방안 커튼이 쳐진 묵직한 밤나무 침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 오랜 세월동안 햇빛을 받지 않은 탓인지 누렇게 곰팡이 핀 베개 위에 그녀의 회색 머리를 얹어 놓은 채로 —

5

흑인은 문상 온 첫 손님들을 현관에서 맞아들이고 안으로 안내한 다음 사라져 버렸다. 손님들은 컷엣말로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면서, 호기심에 찬 민첩한 눈초리를 여기저기에 분주히

옮기고 있었다. 흑인은 집안으로 곧장 걸어가서 뒷문으로 빠져 나간 뒤로는 두번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에밀리의 두 종매들도 곧바로 찾아왔다. 죽은 이틀 후에 그들은 장례식을 치렀다.

읍 사람들은 꽃더미 밑에 조용히 안치된 미스 에밀리에게 마지막 고별을 하기 위해 몰려 왔다. 관 위에는 그녀의 부친의 초상화가 명상에 잠긴 듯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낙네들은 음산한 표정으로 수군댔다. 아주 나이든 할아버지들 중엔 말끔히 손질한 남군(南軍) 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온 사람도 있었는데 — 베란다와 잔디밭 위에 자리잡고 서로 에밀리의 추억담을 한창 늘어놓고 있었다. 마치 미스 에밀리가 자기들과 같은 세대에 속하고, 그녀와 같이 춤을 추기도 했고, 어쩌면 그녀에게 구혼이라도 한 것처럼 믿고 있는 듯한 여조였다. 그들도 노인의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듯이 수학적으로 진행되는 시간관념에 혼란을 일으켰다. 그들에게는 모든 과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록 점점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울철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광막한 초원과 같이 최근 10년간이라도 좁다란 병목에 의해 현재의 그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과거 40년 동안 누구 하나 본 일이 없는 방 하나가 계단 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그 방 문을 억지로 부수고서라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열기 전에 미스 에밀리의 망령을 공손히 지하에 매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문을 부술 때 자연히 거칠게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온 방안에 먼지가 뿌옇게 피어 올랐다. 마치 무덤의 포장을 연상케 하는, 코를 찌르는 듯한 옅은 먼지의 장막이 신방으로 꾸며 놓은 이 방의 모든 것을 뒤덮고 있는 느낌이었다. 바랜 장미빛의 침대 커튼 위에도, 장미빛 전등갓 위에도, 화장대 위에도, 우아하게

늘어선 유리 그릇 위에도, 그리고 호머 베론의 머릿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퇴색한, 은으로 안을 입힌 남자용 화장도구 위에도 — . 이 물건들 사이에 금방 풀어 놓은 듯한 칼라와 넥타이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들을 집어 들자, 먼지로 덮인 표면에 희미한 초생달 모양의 자국이 생겼다. 한 의자 위에는 단정히 개어 놓은 옷이 한 벌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구두 한 켤레와 벗어 던진 양말 두 짝이 놓여 있었다. 사나이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오랫동안 우리들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로 살이 다 허물어져 나간 해골의 깊은 쓴웃음을 내려다보았다. 사나이의 몸은, 한때는 포옹의 자세로 누워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사랑보다 더 영원한 쓴웃음마저 정복하고만 저 죽음이라는 긴 잠이 이 사나이를 간부(姦婦)의 남편으로 만들어 버렸다. 삭다 남은 희미한 잠옷의 흔적 밑에 엉겨붙은 사나이의 썩다 남은 유해는 이제 그가 누웠던 침대에서 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사나이 위에도, 그 옆에 놓인 베개 위에도 참을성 있고 끈질긴 먼지가 덮개를 이루어 고루 뒤덮여 있었다.

그런 다음 우리들은 두 번째 베개 위에 사람의 머리 자국을 보았다. 우리들 중 한 사람이 그 베개 위에서 무엇인가를 집어 올렸다. 희미하고 눈에 안보이는 매마른 먼지가 코를 톡 쏘는 것을 느끼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렸을 때 한 가닥의 기다란 철회색 머리칼을 보았던 것이다.

버베나의 향기

